

‘셀 아메리카’ 우려에 美주식·채권·달러 트리플 약세

S&P500 지수 2.06%↓…새해 상스분 모두 반납

달러가치 떨어지고 금값은 온스당 4700달러 돌파

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유럽을 향한 ‘그린란드 관세’ 위협이 ‘셀 아메리카’(미국 자산 매도)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뉴욕증시 3대지수가 20일(현지시간)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.

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70.74p(-1.76%) 내린 48,488.59p에 거래를 마쳤다.

스탠더드엔드푸어스(S&P) 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3.15p(-2.06%) 내린 6,796.86p,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61.07p(-2.39%) 내린 22,964.32p에 각각 마감했다.

새해 들어서도 강세를 이어가며 시장 최고치를 경신했던 S&P 500 지수는 이날 하락으로 새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.

이날 S&P 500 지수의 낙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회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 대규모 관세 인상을 예고하며 증시가 급랭했던 작년 10월 10일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커졌다.

일명 ‘꽁포지수’로 불리는 미 시카고옵션거래소(CBOE)의 변동성지수(VIX)는 뉴욕증시 마감 무렵 20.09로 올라 작년 11월 이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.

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합의가 없을 경우 유럽 국가들에 10%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셀

룰이 급등한 게 미국채 수익률 상승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쳤다.

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는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와 관련해 “자본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”이라며 외국인투자들이 예전처럼 미국 자산을 사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.

셀 아메리카 우려에 달러화 가치도 가파른 약세를 이어갔다.

ICE선물거래소에서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(DXY)는 같은 시간 98.6로 전장 대비 0.8% 하락했다.

베누번 캐피털 마켓의 마크 챈들러는 수석시장전략가는 로이터에 “미국 등의 증시가 과도하게 팽창된 수준이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”며 “무엇이 ‘비늘 한방’이 될지 몰랐지만, 이제 그것을 찾았다”라고 평가했다.

반면 금 가격은 온스당 4700달러선을

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.

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765.8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3.7% 급등했다.

온 가격도 이날 장중 최고치 기록을 경

신했다. 로이터에 따르면 온 현물 가격은 이날 오전 온스당 95.87달러까지 오르며

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상승 폭을 반납

했다. 온 가격은 2025년 한 해 147% 폭등

한 데 이어 2026년 들어서만 30% 넘게 오

르며 웰리를 지속하고 있다. 연합뉴스



트럼프 대통령은 20일(현지시간)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.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난 1년간 경제 성과와 관세 정책의 순기능을 언급하던 중 이같이 한국, 일본과 도출한 대미 투자금 합의를 거론했다.

연합뉴스

트럼프 “韓·日과 합의로 전례없는 자금 확보”

대미 투자금 합의 성과 거론

던 중 이같이 한국, 일본과 도출한 대미 투자금 합의를 거론했다.

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“아시아로

프로젝트를 언급한 직후 한일 대미 투자

를 말하면서 한일 투자금의 투자처와도

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.

다면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

한일 투자 유치를 별개의 성과로 각각 언

급했을 가능성도 있다. 앞서 미국과 무역

합의를 통해 한국은 3500억달러(약 518

조원),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

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%이던 상호관세

를 15%로 낮췄다.

연합뉴스

CUSTOMER SATISFACTION

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
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

